

변동성 축소는 충격 이후 치유의 시간

Strategist 신중호
02. 3779-8447
jh.shin@ebestsec.co.kr



Chart



Call

- 1 '식물증시'라는 푸념 섞인 단어 부각. 변동성이 크게 축소되면서 활력 잃은 국내증시에 대한 비관론적 스탠스 중 하나. 그러나 엄연히 보면 높은 변동성이 증시활력(또는 상승모멘텀)도 아니고 변동성이 낮아진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님
- 2 단기적으로는 6월의 다양한 이벤트, 브렉시트 투표를 비롯하여 FOMC, OPEC정례회의 등에 대한 관망심리 정도일 것. 국내증시의 밸류에이션만 봐도 전저점(공조체제가 강화되었던 시기)대비 3%내외의 하방압력
- 3 길게보면 변동성 축소는 금융시장의 충격 이후 치유의 시간. 또는 Boom-Bust Cycle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.
- 4 IMF 구제금융과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변동성 축소는 수요(신성장 발굴)와 공급(구조조정) 등의 경제 및 사회변화의 시간과 일치. 우연히도 IMF 구제금융과 금융위기 이후 변동성, 주가, 물가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일치
- 5 단적인 예로 물가의 하향안정화는 곧 경제주체들의 Activity 축소. 이제 방향성은 Activity 확장. Key 시그널은 물가상승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신중호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